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t-Home Children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석주영\*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안옥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인전\*\*

Dept. of Chil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 Suk, Ju-Young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An, Ok-Hee

Dept. of Chil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Park, In-Jeon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at-home children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2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98 children reared at home, residing in an undisclosed city.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d a lower level of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an children at hom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at-home children. Third, in cas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scholastic competence' among self-esteem factors. In contrast, for the at-home children, 'other-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social acceptance' among self-esteem factors.

-----  
▲ 주요어(key words) : 시설보호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오늘날의 급격한 정보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 전반

의 변화 가운데서도 가족구조 및 기능,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변화는 아동복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체계가 단순화되어가며, 친족유대가 약화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족환경 변화 중 특히 결혼가정의 증가는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불우 아동 문제는 부모가 없는 순수한 고아의

\* 주저자 : 석주영 (E-mail: msstone@yumail.ac.kr)

\*\* 교신저자 : 박인전 (E-mail: eqpark@yumail.ac.kr)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 가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 또는 모의 가출,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어 가정이 아동의 성장에 바람직한 환경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건복지통계연보(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요보호 아동인 기아, 미아, 가출아, 미혼모아,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 수가 1995년 4,576명이던 것이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였으며, 3년여에 걸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2000년에는 7,76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1년의 경우 부랑아 시설 전환 및 홀트 아동복지회의 요보호 아동 수 추가로 요보호 아동 수는 12,08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들 중 약 51%에 해당하는 6,171명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보호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성있게 보고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시설보호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Vorria, Rutter, Pickles, Wolkind, & Hobsbaum, 1998) 시설보호 등의 대리적 보호가 아동에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설보호 아동이 겪는 심리적 장애들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Roy, Rutter, & Pickles, 2000). 특히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존의 시설보호 아동들이 보여온 인지적 손상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어떤 이유에서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Vorria, et al., 1998). 시설보호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의 약 5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에게 문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행복과 성공적 적응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있어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전한 성격 형성과 사회적 적응의 중심이 되는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지능과 같은 정의적 특성에 비중을 두는 것에는 매우 소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부적응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정서지능은 일반적인 지능과는 변별되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감성의 발달에 의해 좌우된다. 이 두 요소는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핵심이며, 삶의 필요와 만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0). Mayer와 Salovey(1996)는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여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서를 발생시키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감정이입 혹은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하며, 그러한 능력은 부모의 민감하고 적절한 감정이입적 반응을 통해 일찍부터 발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박영애 외, 2000),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며, 그들의 정서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밝힌 선행연구(Kernberg, 1976), 아동기 정서의 기술적 습득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등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Dunn과 Brown(1994)의 주장, 평소에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정서에 대한 이해와 인지적 기술이 발달하고 상호작용능력 뿐만 아니라 또래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밝힌 연구결과(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를 감안할 때 정서지능 발달에 부모나 가정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인식하는 정서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어 정서적 경험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부모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정서지능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정서지능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연진영, 1987)와 시설보호아동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와 분리 경험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결핍 상태에 있게 되며, 이러한 상실의 경험은 성장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Bowlby(1980)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서지능은 다를 것으로 추측가능하다. 아울러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으며, 정서조망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선행연구결과(권세은, 이순형, 2002)와 시설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오세순(1999)의 연구를 토대로 보더라도 시설보호아동은 일반아동과 정서지능발달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요소로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 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3).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Manning, 1989).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 존중,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며(김형효,

1997), 아동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자아상과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부모, 교사, 친구의 태도로부터 형성하게 되고(Coopersmith, 1967), 부모의 태도와 출생 순위와 관련된 가정적 요인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경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자아존중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송현중, 1993)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받거나 현재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설환경이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동과 보육사간의 충분한 애정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는 Pawlas(1996)의 주장이나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서혜영, 1989; 한상경, 1984),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환경의 자극이 부족하며, 보육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기 어려운 시설환경으로 인해 시설아동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권세은, 2002)를 보더라도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예를 들면, Pelham과 Swann(1989)은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정서적 결정요인이라고 하였고,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매사에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Rosenberg(1965) 역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 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하였고, 박영애 등(2000)도 정서지능이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은 성격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행동 선호도 또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주장(Salovey & Mayer, 1990)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가정환경(이주리, 1991; Bradley & Caldwell, 1988; White, 1979)이나 부모, 형제, 또래와 같은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Harter, 1988)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할 때 정서지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어린 시절 부정적인 양육경험이나 정서적 경험을 가진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두변수간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시설거주여부(즉 시설보호아동인가 일반아동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들 두변인간 상호관계 역시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지능과 자아존중

감의 특성 및 관계에 대해 면밀히 비교·분석하였고, 이는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은 일반아동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일반아동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군과 자아존중감군과의 관련성은 일반아동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아동의 경우 D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98명을 무선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D시에 소재한 일반양육시설 4곳과 그룹홈 형태의 양육시설 1곳 등 5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4, 5, 6학년 아동 62명을 유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성숙하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각할 수 있는 시기가 11세 정도가 되어야 하며(Saarni & Harris, 1991),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함에 있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아동(61.3%)의 비율이 시설보호아동(38.8%) 보다 더 높으며, 시설거주형태별 아동의 학년을 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6학년(33.7%)과 5학년(33.7%)이 4학년(32.7%)보다 약간 많았고,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5학년(35.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학년(33.9%), 6학년(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거주형태별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남아(52.0%)가 여아(48.0%)보다 약간 더 많았고,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남아(67.7%)가 여아(32.3%)보다 훨씬 많았다.

### 2. 측정도구

#### 1)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정서지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을 참고로 박영애 등(20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즉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예: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빨리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20문항), 정서인식(예: 나는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15문항),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예: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다가가서 축하해준다)(11문항), '감정이입' (예: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된다)(8문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아동 자신이 평소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80, 정서인식 .84,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82, 감정이입 .76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번안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한 박영애(1995)의 척도 중에서 일부 문항내용의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한 박영애 등(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5가지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지각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지각감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가지 하위영역은 학업능력(Scholastic Competence) (예: 나는 학교 공부를 참 잘한다고 생각한다),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예: 나는 모든 운동을 다 잘한다), 사회적 수용도(Social Acceptance) (예: 나는 친구를 참 쉽게 사귀다), 신체·용모(Physical Appearance)(예: 나는 내 모습에 대해 만족한다), 행동·품행(Behavioral Conduct)(예: 나는 늘 올바른 행동을 한다)이며, 전반적 자아지각감(Global Self-Worth)(예: 나 자신이 마음에 든다)은 5가지 영역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으로서 5가지 영역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표 1>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의 차이

변 인		집 단	M(SD)	t
정 서 지 능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일반아동	2.26( .27)	6.669***
		시설보호아동	1.96( .30)	
	정서인식	일반아동	2.57( .27)	5.642***
		시설보호아동	2.23( .42)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일반아동	2.46( .32)	6.197***
시설보호아동		2.08( .41)		
감정이입	일반아동	2.19( .37)	1.956	
시설보호아동	2.07( .39)			
자 아 존 중 감	정서지능 전체	일반아동	2.38( .20)	7.477***
		시설보호아동	2.08( .28)	
	학업능력	일반아동	2.68( .39)	7.750***
		시설보호아동	2.04( .57)	
	사회적 수용도	일반아동	2.91( .47)	2.500***
		시설보호아동	2.68( .61)	
	운동능력	일반아동	2.84( .50)	-1.399
시설보호아동		2.95( .49)		
신체·용모	일반아동	2.73( .58)	1.585	
	시설보호아동	2.58( .59)		
행동·품행	일반아동	2.70( .41)	5.510***	
	시설보호아동	2.29( .52)		
전반적 자아지각감	일반아동	3.03( .47)	3.265**	
	시설보호아동	2.72( .66)		
자아존중감 전체	일반아동	2.82( .32)	4.963***	
	시설보호아동	2.54( .36)		

\*\*p< .01 \*\*\*p< .001

자아존중감은 각 영역별로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3점, '약간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과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학업능력 .87, 사회적 수용도 .85, 운동능력 .74, 신체·용모 .83, 행동·품행 .71, 전반적 자아가치감 .81이었으며, 자아존중감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는 2002년 9월 2일 초등학교 5학년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산출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예비조사결과 척도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본조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본조사는 2002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일반아동의 경우 D시 S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4, 5, 6학년 아동에게 120부를 배부하여 113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98부를 최종적으로 자료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D시 D구와 S구에 위치한 양육시설 5곳을 선정하여 4, 5, 6학년 아동 80명에게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나 그중에서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6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10.0 program과 SA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와 백분율, Independent-Samples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하였다.

## III. 결과해석

### 1.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서지능의 경우, 감정이입을 제외한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정서지능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정서인식능력,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정서지능 전체도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하위영역 중 운동능력, 신체·용모를 제외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아존중감 전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전체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공부, 또래관계, 행동·품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 2.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학업능력과 정서지능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483)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영역별로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478)과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439), 감정이입(.297), 정서인식(.267)의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동은 정서지능 전체(.255)와 약간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265)만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동의 경우 학업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는 학업능력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특히 높으며, 정서인식능력과 감정이입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수용도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전체(.366)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영역별로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394), 정서인식(.36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정서지능전체(.376)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446)과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284)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동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과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이 높은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과 정서인식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 사회적 수용도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나 그 다음 상관이 있는 정서지능 변인은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정서인식, 일반아동의 경우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능력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영역 중에서도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298)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 아동의 경우 정서지능 전체와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아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2>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자존감	정서지능	정서인식자기정서	정서인식	타인 정서조절 및	감정이입	정서지능 전체
		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표현		
학업능력	시설보호아동	.439***	.267*	.478***	.297*	.483***
	일반아동	.265**	.083	.152	.130	.255*
사회적 수용도	시설보호아동	.157	.365**	.394**	.176	.366**
	일반아동	.284**	.144	.446***	.183	.376***
운동능력	시설보호아동	.161	.088	.298*	.241	.236
	일반아동	.176	-.021	.033	.140	.129
신체·용모	시설보호아동	.138	.216	.216	.236	.255*
	일반아동	.059	-.113	-.037	.102	.007
행동·품행	시설보호아동	.448***	.280*	.371**	.291*	.460***
	일반아동	.217*	.291**	.256*	.176	.336**
전반적 자아가치감	시설보호아동	.217	.311*	.215	.252	.329**
	일반아동	.126	.128	.097	.174	.195
자아 존중감 전체	시설보호아동	.402**	.413**	.516***	.395**	.562***
	일반아동	.265**	.105	.216*	.219*	.299**

\*p < .05 \*\*p < .01 \*\*\*p < .001

신체·용모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255)에 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아동에서는 정서지능 전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아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행동·품행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460)와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 활용(.448),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371), 감정이입(.291), 정 서인식(.280)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인데 반해, 일반 아동은 정 서지능 전체(.336)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인식(.291),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256),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217) 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높은 반면,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에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높고 아울러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인식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 (.329)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영역 중에서는 정서인식(.311) 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정서지능 전체 뿐만 아 니라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 적 자아가치감은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지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제 1 정준함수	.623	.530	.388	.280	.665	.641	.633	.390	1.89*	2.09**	24	24
제 2 정준함수	.394	.339	.155	.115	.193	.213	.183	.130	1.09	1.25	15	15
제 3 정준함수	.304	.269	.092	.072	.107	.128	.102	.078	.89	.96	8	8
제 4 정준함수	.179	.102	.032	.011	.035	.018	.033	.011	.60	.31	3	3

\*p < .05 \*\*p < .01

자아존중감 전체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지능 전체(.562)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영역별로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516), 정서인식(.413),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402), 감정이입(.395)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정서지능 전체(.299)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265), 감정이입(.219),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216)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는 일반아동에 비해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았으며, 특히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고,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인식, 감정이입 능력이 높아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군과 자아존중감군과의 관계

정서지능군과 자아존중감군과의 관계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즉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은 무엇이고, 아동의 정서지능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은 무엇이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서지능의 전반적 기여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정서지능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 <표 6>과 같다.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 $p < .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일반아동의 경우도 제 1 정준변량함수( $p < .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제 1 정준변량함수							
	W		L		L <sup>2</sup>		%ΣL <sup>2</sup>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b>예측변수군</b>								
1.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388	-.069	.810	.509	.656	.259	.283	.162
2. 정서인식	.334	.372	.700	.597	.490	.356	.212	.223
3.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344	.822	.885	.937	.783	.878	.338	.549
4. 감정이입	.238	.129	.621	.327	.386	.107	.167	.066
정서지능 전체					2.315	1.600	1.000	1.000
<b>평가변수군</b>								
1. 학업능력	.536	-.127	.794	.288	.630	.083	.297	.070
2. 사회적 수용도	.246	.837	.577	.797	.333	.635	.157	.537
3. 운동능력	-.088	-.107	.404	.044	.163	.002	.077	.002
4. 신체	.105	-.533	.412	-.119	.170	.014	.080	.012
5. 행동·품행	.398	.426	.746	.614	.557	.377	.263	.319
6. 전반적 자아가치감	.249	.184	.517	.267	.267	.071	.126	.060
자아존중감 전체					2.120	1.182	1.000	1.000

<표 5> 시설거주여부에 따른 정준평가변수군과 정준예측변수군간의 교차상관계수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제1정준			제1정준	
	시설	일반		시설	일반
1.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504	.270	1. 학업능력	.494	.152
2. 정서인식	.436	.316	2. 사회적 수용도	.359	.422
3.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551	.496	3. 운동능력	.252	.023
4. 감정이입	.397	.173	4. 신체	.257	-.063
			5. 행동·품행	.464	.325
			6. 전반적 자아가치감	.322	.141

이러한 정준변량함수에 대해 <표 4>에서는 정준가중치(W), 정준적재치(L), 정준적재치의 제곱값(L<sup>2</sup>), 각 변인의 L<sup>2</sup>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sup>2</sup>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ΣL<sup>2</sup>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타인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885)으로 군내 변량의 약 33.8%를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이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810)으로 군내 변량의 28.3%를 설명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학업능력(.794)으로 군내 변량의 29.7% 정도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이 행동·품행(.746)으로 군내 변량의 26.3%를 설명하였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자기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특히 학업능력과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937)으로 군내 변량의 54.9%를 설명하였다.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사회적 수용도(.797)로 군내 변량의 53.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행동·품행(.614)으로 군내 변량의 31.9%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에서 특히 사회적 수용도와 행동·품행 측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아동의 경우 이러한 변인이 특히 학업능력과 행동·품행, 일반아동은 사회적 수용도와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변수군인 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이 정준평가

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평가변수군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군이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준상관측 교차상관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수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551)과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504)이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학업능력(.494)과 행동·품행(.464)으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변인은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고 이러한 정서지능 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은 학업능력과 행동·품행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수는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496)이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은 사회적 수용도(.422)와 행동·품행(.325)으로 나타나 일반아동의 정서지능변인은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이고, 이러한 정서지능 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 변인은 사회적 수용도와 행동·품행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군간의 공유변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를 산출하여 두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함수 중복지수가 .224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변인은 평가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데 약 22.4%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예측변수군의 제 1 정준함수 중복지수는 .112로 나타나 예측변수군인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데 약 11.2%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약 2배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합적으

<표 6>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정준중복지수

변인	Canonical R		R2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시설	일반
예측변수군 1	.623*	.530**	.388	.280	.224	.112	1.000	1.000
					.224	.112	1.000	1.000
평가변수군 1	.623*	.530**	.388	.280	.137	.055	1.000	1.000
					.137	.055	1.000	1.000

\*p< .05      \*\*p< .01



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을 비교한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감정이입을 제외한 영역에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시설청소년에 비해 정서지능 총점을 비롯하여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세순(1999)의 연구,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다는 권세은 등(2002)의 연구와 시설보호아동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유안진 등(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감정이입능력이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이입능력이 자신의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 후에 형성되며(연진영, 1987),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는 능력,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 등을 가리키며 타인 정서의 공유,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배려, 이타행동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Laura(1998)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감정이입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더 성숙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박영애 등(2000)의 연구에서도 다른 능력에 비해 감정이입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위영역 중에서 운동능력과 신체?용모를 제외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에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시설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노봉린, 1997; 박영준, 1997; 신소희, 1984; 윤광현, 1993)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학교적응을 보인다는 성미영 등(2001)의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설보호아동도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학교적응을 보인다는 김선혜(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지원과 격려는 학업성취의 성공과 실패 및 학문적 자아개념을 긍정적?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개입되는데(Kifer, 1975),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관심있는 부모가 없으며, 보육사도 아동 개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수용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에 비해 시설보호아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이 또

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낮은 학교적응을 보인다는 성미영 등(2001)의 연구, 저학년 시설보호아동이 학교적응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순형 등(2000)의 연구, 시설보호아동이 또래들과 화목?신뢰하는 관계를 덜 보인다는 Vorria 등(1998)의 연구,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또래로부터 낮은 지지를 지각하고 있다는 유안진 등(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자아개념에서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상미, 2001; 조현경, 1995)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김영길, 1967; 서혜영, 1989; 한상경, 1984)에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각 하위영역별 관계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학업능력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지능과 전반적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과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이입능력과 정서인식능력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동은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과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학업능력이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과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공통적이거나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이외에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이입능력 및 정서인식능력과의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수용도의 경우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에게 동일하나 이를 제외했을 때 상관이 있는 정서지능 변인은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정서인식, 일반아동의 경우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아동의 경우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거나 활용하는 능력과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래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수용도가 상관이 있는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기있는 아동들은 분노를 표현할 때 또래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하며, 상대방의 분노도 직설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정서지능적 특성을 지닌다는 Eisenberg와 Fabes(1995)의 주장과 감정표현이 자유로우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권명순(1999)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사회적 수용도가 상관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정서인식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인 정서인식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상관이 있는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모든 정서지능 능력과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과의 관계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고, 그중에서 학업능력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수용도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 타인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사회적 수용도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진다는 Reasoner(1982)의 주장, 타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아동들의 사회적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난다는 Denham 등(1993)의 주장,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는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인지하는 사회적 조망 능력이 필요하네(Walker, 1982), 그중에서도 타인의 기분, 감정상태를 추론하고 평가하는 정서조망 능력은 또래간의 수용정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Gnepp와 Gould(1985)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정서표현 및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타인의 정서조절 및 정서표현과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교성적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Laura, 1998)과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정현희, 2002), 그리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가 또래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며(Stocker & Dunn, 1990) 산만?주의집중의 결함을 나타내어 학업성취가 낮다는 주장(Rose, 1991)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입을 제외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능력과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자신의 학업능력과 행동·품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 모두에 있어서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두 변수간의 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지능 전체와 자아존중감 전체의 상관계수가 일반아동의 경우 .299로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562로 나타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넷째,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고, 그 중에서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수용도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두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온 부분이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을 뿐 아니라 상관관계수 역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특히 대상이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일반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영역별 비중을 달리하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일반아동의 경우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에는 하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영역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각 영역별로 발달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부족한 영역이 학업능력과 행동·품행 측면이므로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역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보호아동의 학업능력이나 행동?품행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의 기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능력과 특히 상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어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시설보호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특정 주제에 제한되어 있을 뿐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을 표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아동과 비교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었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이전의 양육경험을 통제하지 않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부모관련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비교한 것을 확대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1월 05일

**【참 고 문 헌】**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명순(1999). 유아의 감성지능과 또래간 인기도와와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세은(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과 자기역량 지각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세은·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김상미(2001). 대구지역 시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식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길(1967). 정상소년집단과 소년비행집단에 대한 자아개념 비교 연구. *교육학 연구*, 5, 87-88.

김형효(1997). 한국인의 사회적 불행과 가정의 존재론적 가치. 가족의 정신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1.

노봉련(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7). *종합진로·진로적성검사*. 서울 : 대교출판부.

문용린·곽윤정·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박영준(1997).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2). 제 48호 보건복지통계 연보 2002.

서혜영(1989). 시설아와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의 비교 연구. *아동문제 연구* 6, 부산아동문제연구소, 158-160.

성미영·이순형·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송현중(1993).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귀인모형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소희(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세순(1999).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정서지능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윤광현(1993). 육아시설 아동 생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형·이강이·성미영(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38(11), 181-191.

이주리(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6.

조현경(1995).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경(1984).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 및 자기역량 지각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adley, R. & Caldwell, B.(1988).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 A ten-year follow-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 852-867.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III*. N. Y. : Basic Books.

Cassidy, J., Parke, R., Butkovsky, L. & Braungart, J.(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Denham, S. A. & Grout, L.(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7,205-227.
- Dunn, J. & Brown, J.(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Eisenberg, N. & Fabes, R. A.(1995). The relation of young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to social competence,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ognition and Emotion*, 9, 203-228.
- Gnepp, J. & Gould, M. E.(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esteem. In E. M. Hetherington(Ed.) & P. H. Mussen (Sear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 Wiley.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88).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ogan & R. Sternberg(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Kernberg, O.(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Y : Jason Aronson.
- Kifer, E.(1975).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2(2), 191-210.
- Laura, T. L.(1998).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individual performance*. Texas Tech University Dissertation.
- Manning, P. C.(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 Mayer, J. D. & Salovey, P. 홍명희 역(1996). *EQ : 감성지능학 습법*. 서울:해냄 출판사.
- Pawlas, G.(1996). Homeless children : Are they being prepared for the future? *The Educational Forum*, 61, 18-23.
- Pelham, B. W. & Swann, W. B.(1989). From self-concept to self-worth :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Reasoner, R. W.(1982). *Building self-esteem : administrator's guide*. Palo Alto Calif.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 A.(1991).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ling skills to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Doctori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y, P., Rutter, M. & Pickles, A.(2000). Institutional Care :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139-149.
- Saarni, C. & Harris, P.(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NY : Basic Books. Harp Collins Pub.
- Stocker, C. & Dunn, J.(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Vorria, P., Rutter, M., Pickles, A., Wolkind, S. & Hobsbaum, A.(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 I. Social, Emotion, and Behavioral Differ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225-236.
- Walker, A. S.(1982). Intermodal perception of expressive behaviors by human infa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54-167.
- White, B.(1979). Critical influences in the origins of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1, 243-266.